

# 도, 2020금융타운 기본구상 닷 올려

### 용역 착수보고회 수요분석·수익성 보장 도입시설 구상... 올 연말께 밑그림 완성 예정

전북혁신부지 내 금융타운 조성이 기대된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2020년 미래 신성장 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올해 금융타운 조성사업이 지난 2월 부지매입 완료에 이어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했다.

도는 LH공사로부터 매입한 금융타운 조성부지 3만6,453㎡(약 1만1,027평)에 대해 소유권 이전 및 기본구상 용역을 위한 사전절차를 상반기까지 마치고 이날 도청 중회의실에서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용역은 ▲전북금융타운 입지여건 종합분석, ▲도입시설과 조성규모 산정을 위한 금융기관 수요분석, ▲국내·외 금융타운 운영사례와 시사점 분석, ▲전북금융타운 조성 재원 조달방향과 사업화 방안을 제시하는 기본구상 수립이 포함됐다.

이 용역은 올 연말께 밑그림이 완성될 예정이다.

또 이번 착수보고회는 용역수행기관 연구진을 비롯하여 금융·도시개발 관련 전문가 및 금융기관 임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금 특화 금융타운 조성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주요 과업 추진내용 설명과 의견수렴이 이뤄졌다.



전북금융타운 조성 기본구상용역 착수보고회를 2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유희숙 경제산업국장, 금융·도시개발 관련 전문가 및 금융기관 임원, 용역수행기관 연구진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금 특화 금융타운 조성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주요 과업 추진내용 설명과 의견수렴을 가졌다.

도는 착수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자문을 적극 반영하고 필요한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토론 및 전라북도 금융산업발전위원회 검토 등을 통해서 신뢰도가 높은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기금운용본부와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와 관련 서비스업

계 비즈니스 환경에 긴밀하게 대응하는 수요분석과 장기적으로 금융타운 개발 수익성이 보장되는 도입시설 구상이 이번 용역의 핵심이다"며 "차별화된 금융허브 조성 비전을 가시화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전북 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 본사 인접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올해 11월 준공하고(현공정률 70%) 2017년 2월에 이전할 계획이며 향후 기금운용규모가 2,500조까지 커질 것을 대비해 제2기금 관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고민형 기자

## 전북소방본부, 웨어러블 카메라 운영

### 내달부터 20개소 설치 영상의료지도 시범 운영 소방 방해사범 증거확보도

전북소방본부는 내달 1일부터 도내 소방항공대 및 전문구급대 등 20개소에 웨어러블 카메라를 설치해 영상의료지도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영상의료지도시스템은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스마트폰과 간단한 웨어러블 장비를 활용해 의료지도 의사에게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전송하고, 의료지도 의사는 119구급대원에게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지도함으로써 중전 의료지도의 역할을 뛰어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번 시스템은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사범 증거 확보에도 적극 활용될 계획이며 2달 간 운



전북소방본부는 내달 1일부터 도내 소방항공대 및 전문구급대 등 20개소에 웨어러블 카메라를 설치해 영상의료지도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영상 문제점을 분석한 후 오는 1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이선재 소방본부장은 "영상의료지도

시스템은 심정지환자 등에게 '골든타임' 내 현장대응으로 생존을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개성공단 기업 특별판매전 오늘~내일 도청 1층 로비

개성공단 입주기업 우수상품 특별판매전이 30일부터 이틀간 도청 1층 로비실에서 열린다.

전북도는 이번 특별판매전은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도내 기업 2개소를 포함해 모두 12개 기업이 도자기류·의류·식품 등의 제품을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참가 기업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은 판매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판매사인 인건비 및 물류비 등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중소기업청과 17개 광역자치단체가 협업해 추진 중인 행사로 7월에 서울에서 처음 개최되었고 전북에서 8번째로 개최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의협 "콜레라 대유행 불가능"

### 대국민 안내문 발표... "가을까지 산발적 발생 불가피"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15년만에 국내에서 콜레라 감염 환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콜레라 집단감염 가능성은 낮지만 가을까지 추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29일 밝혔다.

의협은 이날 콜레라에 대한 기본 상식과 대응법을 문답풀이식으로 담은 '콜레라 환자 발생에 따른 대국민 안내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최근에 발생하는 콜레라는 치료를 받으면 대개 수일내 증상이 호전되고 별다른 합병증 없이 회복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감염병은 아니다"면서 "국내에서 콜레라의 집단 발생과 대규모 유행이 생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의협에 따르면 콜레라는 크게 고전(classic)형과 엘토르(El Tor)형 두 가지의 생물형으로 분류된다.

30년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고전(classic)형 콜레라가 유행했지만 1990년대 들어 전 세계적으로 엘토르(El Tor)형 콜레라만 유행하고 있다.

고전형 콜레라는 설사에 동반된 탈수 증상이 생길 수 있고 예전에는 치료법도 잘 개발이 되지 않아 사망률이 50%를 안팎으로 높았던 반면 엘토르형 콜레라는 고전형에 비해 설사 증상이 심하지 않고 치료를 받으면 사망하지 않고 수일내 회복 가능하다.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것도 엘토르형 콜레라다.

의협은 콜레라의 발병 경로로 음용수 오염, 음식 오염, 환자에 의한 전파를 제시하면서 "국내에

서 콜레라가 상수도나 음용 지하수를 오염시켜 집단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했다.

또한 "콜레라는 사람 간 전파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국내 콜레라 발생은 여름철 해수욕이 올라가면서 해안에서 증식한 콜레라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먹고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경우는 산발적 발생 양상을 보이며 가을까지 추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의협은 엘토르형 콜레라는 균에 노출돼도 심한 설사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은 50명중 1명도 안 된다"고 알려져 있다며 즉 감염돼도 대부분 무증상으로 있다가 체내에서 균이 사멸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콜레라는 위산에 약하기 때문에 위산 분비가 잘 이뤄지지 않는 사람은 감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면 위절제술을 받았거나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 등으로 강력한 제산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콜레라균이 위를 거쳐 소장까지 생존해 도달할 확률이 높아진다. 또 노약자, 만성질환자 등의 면역이 떨어진 경우 콜레라 증상이 발생하면 건디기 힘들 수도 있다.

의협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면서 "하지만 해외여행시에는 콜레라가 아직도 위험한 질환이며 현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여행전 콜레라 백신접종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시스

## 도, 추석명절 공직 집중감찰활동 전개

### 내달 18일까지... 주민편익시설 등 관리실태 중점 점검도

전북도는 내달 18일까지 추석명절 집중감찰기간으로 정하고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등을 차단하고 귀성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주민편익시설 등의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하는 감찰활동을 전개한다.

감찰반은 도내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5개 반 29명으로 편성하였고 감찰반원들은 감사관 지휘아래 해당 관할의 시·군, 직속기관 및 사업소, 출연기관 등 소속직원들의 직무와 복무에 대해 정기 및 압행감찰을 병행 실시하게 된다.

이번 공직 감찰 기간 중에는 대민행정의 직무공백 및 복무 소홀은 물론 명절을 이유로 금품·향응 수수 등 공직기강 해이를 막기 위해 집중적으로 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명절분위기에 편승해 직무태만 등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찰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추석명절 감찰은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출향한 귀성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제10회 전국장애인가요제 안내

장애인의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분야 참여 확대를 위하여 매년 장애인 가요제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 ① 참가자 신청 : 등록 장애인 누구나 (16세이상)
- ② 신청방법 : 대중가요 1곡 선정하여 전화, 방문 팩스로 신청가능 (8월 31일까지)
- ③ 참고 : 도민누구나 관람가능. 행운권 추첨하여 상품 증정함

- \* 일시 : 2016년 9월 3일 (토) 오후 4시 30분
- \* 장소 : 전주 풍남문 문화광장 (남부시장 입구)
- \* 주최 : 전북장애인 복지문제연구소
- \* 후원 : 전라북도, 한국연예인협회 전북지부, 전북장애인 신문사



대회본부장: 김양욱



MC: 최현아(가수 겸 MC)

전북 장애인 복지문제 연구소

T. 286-6678 F. 287-6678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